

달라진 '5·18 알리기'...이제는 감성

5·18기념재단 39주년 앞두고
'5·18 맑음' '너와 나의 5·18'
청소년·성인 대상 교양서 출간
산뜻한 표지에 수필식 구성

5·18기념재단이 펴낸 '5·18 맑음'과 '너와 나의 5·18'을 좀 더 편안한 감성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알기 쉬운 구성과 산뜻한 표지 디자인을 갖춘 청소년·성인 대상 교양서를 잇따라 출간하며 5월 광주의 진실을 쉽게 들려준다.
5·18기념재단은 "5·18청소년도서 '5·18 맑음'(창비)과 대학생·일반인 대상 '5·18 교양도서 '너와 나의 5·18'(오월의 봄)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5·18 맑음'은 1980년 5월 18일 신군부에 대한 광주의 열흘간 항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항쟁 이후 현재까지 일어난 상황을 정리했다. 또 유신 시대와 6월 항쟁 등을 설명하고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국의 항쟁 역사도 소개했다. 재단 측이 소장한 관련 희귀 사진들도 실었다.
책 표지는 상단의 노란 배경 밑으로 초록 풀숲에 쌓인 하얀 꽃나무 그림을 실어 감성을 더했다.
5·18재단이 2년 전 기획했고 집필은 현직 교사인 임광호(광주 첨단고), 배주영(경북 구미 광명중), 이민동(경기 수원 정명고), 정수연(두암중)씨가 맡았다. 박만규 전남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감수했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5월 18일, 맑음' 기자회견회에서 임광호 교사는 "긴 역사를 통해 보면 5·18은 승리한 역사"라며

"그래서 (제목에) 맑음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왜곡과 망언이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 도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며 "5·18이 교양과 지성으로 자리 잡을 때 왜곡이 뿌리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 대상 '너와 나의 5·18'은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 내며 5월 과정을 함께 해결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필자는 김정인 춘천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김정환 서강대 트랜스내셔널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은우근 광주교육대 교수, 정문영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 연구원, 한순미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등 5명이 맡았다.
책은 모두 4부 13장으로 구성됐다. 제1

부 '5·18, 배경과 진행'에서는 광주 항쟁 이전의 역사와 과정, 5·18의 전개 과정, 5·18 이후 6월항쟁까지의 과정을 서술했고, 2부 '5·18 이후의 5·18'에서는 광주 항쟁이 남긴 상처와 그 치유 문제, 진실의 왜곡과 조작, 항쟁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어떻게 이룰지 다뤘다. 3부 '해석과 실천'은 5·18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프랑스·러시아·중국 등의 변혁 운동을 광주 항쟁과 비교했으며, 4부 '기억, 증언, 예술'은 5·18이 문화예술로 어떻게 승화했는지 살폈다.
저자들은 서문을 통해 "민중의 생명을 바쳐 쓴 서사시인 5·18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민중이 겪은 역사적 고통과 좌절, 그리고 극복에 대한 기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책은 온라인·오프라인 서점에서 모두 구매 가능하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20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505보안부대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옛 505보안부대 옛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했고 있다.

"5·18 계엄군 지휘본부 505보안부대 원형 보존해야"

기념재단, 활용방안 토론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진압 작전의 실질적 지휘본부였던 505보안부대 옛터를 1980년 당시 원형대로 복원·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05보안부대가 민주 인사와 시민들을 고문하고 역사를 왜곡한 핵심 기관이었던 만큼, 원형 보존해 역사적 교훈을 주는 교육장소로 남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5·18기념재단은 20일 오후 광주 동구 5·18기록관에서 '505보안부대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한 이근근 조선대 민주평화연

구원 연구교수는 "505보안부대 터는 무고한 시민들과 민주 인사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내란죄 등으로 역사를 왜곡·조작했던 장소라는 점에서 반드시 원형 복원·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기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505보안부대의)원래 시설을 보존하고, 역사적 의미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속의 민주주의를 통해 원형 보존과 교육과 관련한 시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역시 원형이 훼손된 전남도청 사례를 우려하며 원형 보존을 강하게 요구했

다. 정준식 유족회장은 "(도청 사례와 비슷하게) 건물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다면 원래의 모습을 변경시키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며 "논의 과정에도 5월 단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505보안부대 고문 피해자 송희성씨는 "서대문형무소에 가보면 펜촉으로 손톱 밑을 고문하는 모습이 재연돼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내 몸이 고통받는 것처럼 간접 체험할 수 있다"며 "505보안부대도 마찬가지로 그 역사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도 절대금지 구역 도입 불법 주정차 뿌리 뽑는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지역민 교통 불안 해소를 위해 전남도가 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을 도입한다.

전남도는 생활 속 반드시 바뀌어야 할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의 하나로 불법 주정차를 꼽고, 근절대책을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 도입·공익신고 및 단속 강화·홍보 및 시민단체 협업 강화 등을 담았다. 현재 관련 부처에서 입법 개정 중인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은 전남도가 도입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으로는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전남도는 일선 시군 협조를 얻어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을 선정하기 위한 대상지 조사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은 경계석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현재 단선인 황색실선을 복선으로 배치하고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등의 절대 금지구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8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익신고와 단속도 강화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6 해질 18:44 달뜨기 18:59 달지기 06:52

춘분(春分)
새벽까지 비오다 그치고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

광주	비운뒤 갬	10/14	보성	비운뒤 갬	8/15
목포	비운뒤 갬	9/12	순천	비운뒤 갬	12/18
여수	비운뒤 갬	12/17	영광	비운뒤 갬	8/12
나주	비운뒤 갬	8/15	진도	비운뒤 갬	9/11
완도	비운뒤 갬	10/15	전주	비운뒤 갬	11/13
구례	비운뒤 갬	9/16	군산	비운뒤 갬	9/11
강진	비운뒤 갬	10/15	남원	비운뒤 갬	11/13
해남	비운뒤 갬	8/12	흑산도	흐린뒤 맑음	8/11
장성	비운뒤 갬	8/1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서~북서	1.0~2.5	서~북서	1.0~2.5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3.0	서~북서	2.0~4.0
남해 앞바다	남서~서	1.0~2.5	서~북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서~서	2.0~4.0	서~북서	2.0~3.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서~서	2.0~4.0	북서~북	2.0~3.0

◇ 생활지수

보통	뇌졸중	보통	좋음
감기	미세먼지		

◇ 물때

	간조	만조
	07:31	02:11
목포	19:58	14:44
여수	03:08	09:32
	15:31	21:50

◇ 주간 날씨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	☁	☀	☀	☀	☀	☀
2/10	0/11	0/13	2/15	3/16	4/16	5/15

광주·전남 오늘 최대 60mm 많은 비

광주지방기상청은 "21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만 비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20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10도, 전남은 14~18도 분포를 보이겠다. 광주·전남 예상강수량은 10~60mm 내외로, 남해안과 지리산 등 일부지역에는 30~8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21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발달하는 찬 공기로 인해 기온이 큰 폭(5~10도)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당분간 추운 날씨(체감온도 영하 2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20일 오후 4시를 기해 고흥·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강진·완도·거문도·초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은 앞서 오후 3시 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흑산면 제외)·진도에 강풍주의보를 발령했다.

20일 광주는 지난 7일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가 해제된 이후 13일 주의보가 발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과 22일 대기 확산이 원활해 광주·전남 미세먼지 예보를 '좋음' 단계로 예보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들불열사기념사업회 '들불상' 후보자 공모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가 '제14회 들불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후보자 추천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20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접수받는다. 후보자 이력서, 추천서, 후보자 공적자료 등 자료를 들불열사기념사업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과 부상이 주어진다. 지난해 13회 들불상 수상자는 미투 운동의 촉발자였던 '서지현 검사'가 받았다. 올해 수상자는 5월 20일 발표하며, 시상식은 같은 달 25일 11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김홍희 기자 kh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 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 10% · 융자 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주 소 | 순천시 중양로 317 2층
전 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